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4, pp.133-165
https://doi.org/10.29212/mh.2022..124.13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唐太宗 高句麗 親征과 唐軍의 병력

- 군량으로 추산한 唐軍의 수와 그 함의 -

崔珍烈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연구교수

목 차

1. 서론
2. 史書에 언급된 唐軍의 병력
3. 唐軍 병력의 추산
4. 추산 唐軍 병력과 인구대비 징발률
5. 결론

초 록 이 논문은 唐太宗의 高句麗 親征에 동원된 唐軍의 수를 추산하고 唐軍 수의 의미를 인구와 군사적 측면에서 분석한 글이다. 필자는 『冊府元龜』와 『新唐書』, 『資治通鑑』에 기록된 唐軍이 탈취한 군량을 바탕으로 安市城과 遼東城 등지에 있었던 唐軍 병력을 추산하였다.

唐太宗은 333,334인(『新唐書』) 또는 352,000인(『冊府元龜』)이었으며, 張亮이 지휘한 수군 7만인을 포함하면 최소 약 403,000(『新唐書』), 또는 422,000인(『冊府元龜』)을 동원하였다. 이는 張儉 등이 지휘한 군

www.kci.go.kr

사를 제외한 수치이다. 이 가운데 후자의 수치가 보다 사실에 부합할 것이다. 여기에 각종 물자를 수송하는 치중부대의 수를 정규군의 3배라고 가정하면 唐太宗은 당시 인구의 최소 11.97%(『冊府元龜』), 또는 11.36%(『新唐書』)에 해당하는 정규군과 물자수송을 맡은 백성들을 동원했을 것이다. 이는 성인남성의 23.94% 또는 22.72%를 동원한 셈인데,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심지어 이 비율은 唐太宗이 비난한 隋煬帝의 제1차 고구려 침공(113만 동원)보다 높았다.

이 논문은 唐太宗의 高句麗 침략 당시 唐軍의 수를 정확히 추산함으로써 高唐 전쟁을 재평가하는 돌파구가 된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高句麗가 일방적으로 패배했다고 서술한 『通典』, 『舊唐書』, 『唐會要』, 『冊府元龜』, 『新唐書』, 『資治通鑑』 등 중국 사서 기록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연구이다. 특히 高唐 전쟁을 가장 상세히 기록한 『冊府元龜』의 사료적 가치를 밝혔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주제어 : 高句麗, 唐太宗의 高句麗 親征(침략), 高唐 전쟁, 은폐된 唐軍의 수, 唐太宗, 隋煬帝, 『冊府元龜』, 『新唐書』, 『資治通鑑』

(원고투고일 : 2022. 7. 1, 심사수정일 : 2022. 8. 15, 게재확정일 : 2022. 8. 30.)

www.kci.go.kr

1. 서론

唐太宗의 高句麗 침공은 중국 역사에서 皇帝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주변국을 침략했던 드문 예였다. 그러나 隋末에 여러 군웅들을 격파하여 武勇을 떨쳤던 唐太宗의 高句麗 親征은 실패로 끝났다. 공교롭게도 唐太宗의 高句麗 침공 사료는 史書마다 내용이 다르며, 심지어 모순되기도 하였다. 이는 당시 전쟁 상황을 은폐하려는 의도라는 심증을 낳게 한다.

唐太宗의 高句麗 침공은 高唐 전쟁은 전쟁의 원인,[1] 외교관계,[2] 親征의 실패,[3] 침공 전략,[4] 치중 문제[5]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되었다.[6] 이 가운데 史書의 모호한 기록 때문에 唐太宗의 高句麗 침공 당시 高句麗軍의 활약 및 전과는 물론 唐軍 병력의 수는 아직

1) 薑明勝, 「隋唐與高句爭原因及影向探析」, 延邊大學碩士學位論文, 2008; 張豔, 「朝貢關系下隋唐對高句麗戰爭的原因分析」, 『周口師範學院學報』 2015-6, 2015; 天行健, 「隋唐爲何一定要征服高句麗」, 『會博覽(下旬刊)』 2012-6, 2012.

2) 拜根興, 「激動의 50년-高句麗와 唐 關係 硏究-」, 『高句麗硏究』 14, 417-443쪽; 이성제, 「고구려와 거란의 관계-대수, 당전쟁기 거란의 동향과 그 의미-」, 『북방사논총』 5, 2005; 祝立業, 「略論唐麗戰爭與唐代東亞秩序構建」, 『社會科學戰線』 2014-5, 2014.

3) 拯救夢想, 「隋唐皇帝禦駕親征爲何屢屢失敗」, 『時代青年』 2013-9, 2013.

4) 馬正兵, 「唐太宗三次東征的軍事失誤」, 『文史春秋』 2008-9, 2008; 張國亮, 「唐征高句麗之戰的戰略硏究」, 吉林大學 석사학위논문, 2008, 5-29쪽; 張曉東, 「唐太宗與高句麗之戰跨海戰略」, 『史林』 2011-4, 2011.

5) 楊希義于汝波, 『唐代軍事史』上(中國軍事通史 第十卷),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1998, 156-161쪽 및 370쪽;曹柳麗, 「隋煬帝·唐太宗征高句麗軍事後勤建設比較硏究」, 江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3

6) 唐太宗의 高句麗 침공을 비롯한 高唐 전쟁 및 연구사는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高句麗 對隋, 唐戰爭史』, 서울: 국방부, 1991; 임기환, 「7세기 동북아 전쟁에 대한 연구동향과 과제-고구려와 수, 당의 전쟁을중심으로」, 『역사문화논총』 8, 신구문화사, 2014, 7-33쪽; 정동민, 「최근 중국 학계의 고구려 전쟁사 연구」, 『軍史』 102, 2017, 259-294쪽 등 참조.

www.kci.go.kr

완전히 규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新唐書』「高麗傳」에 기록된 唐軍 10여만 인과 船師 7만을 병력 총수로 보거나[7] 최소 10만 3천과 전함 500척으로 파악하기도 한다.[8] 그러나 『新唐書』처럼 같은 사서에서도 唐軍의 병력 수를 다르게 기록하였기 때문에 『舊唐書』와 『新唐書』 등의 기록에서 당군이 누락되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다양한 방법으로 唐軍의 병력을 추정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용만은 신라 성덕왕이 707년 1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1인당 하루 3升씩 모두 300,500석의 곡물을 구휼을 위해 나눠주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과 唐이 획득한 628,000石의 군량을 단서로 대략 30만 명의 唐軍이 요동군과 안시성 주변에 있었다고 추산하였다.[9] 그러나 『삼국유사』의 도량형과 唐의 도량형 단위가 다른 점을 간과하였다. 노태돈은 唐太宗, 李勣, 張亮이 각각 26명, 14명, 10명의 총관을 지휘했음에 주목하여 총관 1명이 4천 명을 지휘했다고 계산하여 육군과 수군이 20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였다.[10] 총관 1인이 4천 인을 지휘했다는 중국학자의 추산[11]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성이 의심된다.

唐太宗의 高句麗 침공 당시 唐軍의 병력은 高唐 전쟁을 이해하는 기초이다. 필자는 『通典』 등에서 당시 唐軍의 수를 추산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唐太宗이 동원한 군사 숫자를 추산하였다. 지면 관계상 본고에서 다루지 못하지만[12] 당시 군사의 차

---

7) 曹柳麗, 隋煬帝·唐太宗征高句麗軍事後勤建設比較研究, 江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3, 29-30쪽.

8) 이호영, 「당과의 전쟁」,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5(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국사편찬위원회, 1996, 141쪽, 고구려의 대수(당의 오기)전쟁표.

9) 김용만, 『새로 쓰는 연개소문傳』, 바다출판사, 2003, 168쪽.

10)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82쪽 및 주)39. 여기에는 장검이 지휘하는 營州都督府의 군사와 唐에 협조한 契丹·奚의 군대는 제외한 수이다.

11) 孫繼民, 『唐代行軍制度研究』, 臺北: 文津出版社, 1995, 123쪽.

12) 「唐太宗 시기 高唐 전쟁과 唐의 인력·물자 동원」이란 제목의 논문을 집필 중이

www.kci.go.kr

출, 물자 징발과 운송의 지역 할당, 軍船의 건조 등을 통해 병참·경제·재정 측면에서 唐太宗의 高句麗 침공을 재해석할 수 있다. 본고는 이 작업의 교두보로써 사료검토와 唐軍의 병력을 추산하고 인구통계 및 전체 병력과의 비교를 통해 唐太宗의 高句麗 침공이 唐 국내에 끼친 영향을 살펴본 力作이다.

먼저 2장에서 唐軍의 병력과 전과를 간략히 기록한 사서, 즉 『通典』, 『舊唐書』, 『唐會要』와 唐軍의 수와 戰功을 자세히 기록한 사서인 『冊府元龜』·『新唐書』·『資治通鑑』·『三國史記』의 唐太宗의 高句麗 침공 기록을 분석한다. 이어서 3장에서 唐太宗의 高句麗 침공에 동원된 唐軍 병력을 추산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4장에서 병력 및 병참수송 인력이 唐太宗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지역별 전쟁부담을 검토하여 唐太宗의 高句麗 침공이 唐의 경제와 사회에 끼친 영향을 살펴본다.

이 논문은 唐太宗의 高句麗 침공 당시 唐軍의 숫자를 추산하여 高唐 전쟁의 실상을 밝히고 '聖君' 唐太宗의 민낯을 초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2. 史書에 언급된 唐軍의 병력

본장에서 『通典』, 『舊唐書』, 『唐會要』, 『冊府元龜』, 『新唐書』, 『資治通鑑』, 『三國史記』(편찬 연도순)에 기록된 唐軍의 수와 관련된 사료를 검토한다.

먼저 唐後半期에 편찬된 杜佑의 『通典』의 관련 기사를 살펴보자.

다.

www.kci.go.kr

[정관 18년] 十一月에 이르러 刑部尙書 張亮을 平壤道行軍大總管에 임명하여 萊州에서 출발하여 바다를 통해 平壤으로 진격하도록 명령하였다. 또 特進 李勣을 遼東道行軍大總管에 임명하여 遼東으로 진격하여 양군이 合勢하도록 하였다. 三十日에 遼東(高句麗를 지칭-필자) 정벌에 종군하는 병사들을 幽州에 집합시켰다. [정관] 19년에 太宗이 친정하여 요수를 건넜다. 四月에 李勣이 蓋牟城을 점령하였고 2만 인을 사로잡았으며 蓋州를 설치하였다. 李勣은 遼東城도 함락시켰고 遼州를 설치하였다. 六月에 白巖城을 점령하고 巖州를 설치하였다. 드디어 군사들을 이끌고 安市城에 주둔하여 병사들을 진격시켜 공격하였다. 이때 高麗의 北部俜薩 高延壽와 南部[俜薩] 高惠眞이 靺鞨 15만을 이끌고 구원하러 와서 安市城 東南 8里 떨어진 곳에서 산을 의지해 진을 쳤다. 上은 所司에 朝堂 곁에 受降幕을 치도록 명령하고 밤에 文武 관리들을 불러 몸소 지휘하였다. 이날 밤에 유성이 적의 군영 안에 떨어졌다. 다음날 싸워서 대파하였다. 延壽와 惠眞은 36,800인을 거느리고 항복하였다. 上은 酋首 3,500인에게 戎秩을 제수하였고 그들을 內地로 옮겼고, 나머지 3萬人은 모두 석방하여 平壤城으로 돌아가도록 하였으며, 靺鞨 3,000인은 모두 파묻어 죽였다. 말 5만 필, 소 5만 마리, 갑옷 1만 領을 획득하였고 이를 기념하여 행차한 산을 駐驆山이라 이름 지었다. 許敬宗에게 글을 짓게 하여 돌에 새겨 그 행적을 기념하도록 하였다. 드디어 군사를 安市城 남쪽으로 이동시켰다. 오래되었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九月에 드디어 회군하였다. 먼저 遼·蓋 2州의 戶口를 보내 요수를 넘도록 하였고 兵馬를 불러 성 아래를 돌도록 하였다. 安市城 城主는 성에 올라 절하며 사례를 표했고 태종은 그의 堅守를 가상히 여겨 縑 100필을 하사하여 임금을 섬긴 자를 격려하였다.[13]

13) 『通典』 卷186 「邊防」2 高句麗傳, 5016-5017쪽, "至十一月, 以刑部尙書張亮為

www.kci.go.kr

위의 기록에서 唐太宗의 高句麗 親征에 동원된 군사의 구체적인 수를 적지 않았다. 唐軍이 蓋牟城을 점령한 후 2만 인을 사로잡았으며 蓋州로 바꿨고 遼東城과 白巖城을 攻拔한 후에 각각 遼州와 巖州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高延壽·高惠眞의 군대를 격파하고 36,800인의 항복을 받았으며 밀 5萬 匹, 소 5만 마리, 甲 1萬 領을 노획한 전과를 언급하였다. 이를 제외하면 唐軍이 승리한 蓋牟城·遼東城·白巖城의 전리품이 거의 기록되지 않았다.

『舊唐書』「高麗傳」은 위에서 인용한『通典·邊防典』「高句麗傳」의 서술과 비슷하지만 唐軍이 점령한 城에서 죽이거나 사로잡은 포로의 수가 추가되었다.[14] 또 高延壽·高惠眞 공격할 때 李勣의 步騎 15,000, 長孫無忌의 精兵 11,000의 奇兵, 唐太宗의 步騎 4,000 등 합계 3만 인이 동원되었다고 적었다.[15] 또 항복한 高延壽·高惠眞의 군사는 156,800인, 살해된 말갈인은 3,300인, 벼슬을 받은 추장

平壤道行軍大總管, 自萊州泛海趣平壤. 又以特進李勣為遼東道行軍大總管, 趣遼東, 兩軍合勢. 三十日, 征遼東之兵集於幽州. 十九年, 太宗親征渡遼. 四月, 李勣攻拔蓋牟城, 獲口二萬, 以其城置蓋州. 勣又攻遼東城, 拔之, 以其城為遼州. 六月, 攻拔白巖城, 以其城為巖州. 遂引軍次安市城, 進兵以攻之. 會高麗北部傉薩高延壽·南部高惠真率靺鞨之眾十五萬來援, 於安市城東南八里依山為陣. 上令所司張受降幕於朝堂之側, 夜召文武躬自指揮. 是夜有流星墜賊營中. 明日及戰, 大破之. 延壽·惠真率三萬六千八百人來降. 上以酋首三千五百人授以戎秩, 遷之內地, 餘三萬人悉放還平壤城, 靺鞨三千人并坑之. 獲馬五萬匹, 牛五萬頭, 甲一萬領, 因名所幸山為駐驆山. 命許敬宗為文, 勒石以紀其跡. 遂移軍於安市城南. 久不剋. 九月, 遂班師. 先遣遼·蓋二州戶口渡遼, 乃召兵馬歷於城下而旋. 城主升城拜辭, 太宗嘉其堅守, 賜縑百匹以勵事君者."

14) 『舊唐書』 卷199上 「東夷·高麗傳」, 5322-5323쪽, "十九年, 命刑部尚書張亮為平壤道行軍大總管, 領將軍常何等率江·淮·嶺·硤勁卒四萬, 戰船五百艘, 自萊州汎海趨平壤; 又以特進英國公李勣為遼東道行軍大總管, 禮部尚書江夏王道宗為副, 領將軍張士貴等率步騎六萬趨遼東; 兩軍合勢, 太宗親御六軍以會之." 이하 正史類와 『資治通鑑』은 中華書局 標點校勘本에 따른다.

15) 『舊唐書』 卷199上 「東夷·高麗傳」, 5324쪽, "太宗夜召諸將, 躬自指麾. 遣李勣率步騎一萬五千於城西嶺為陣; 長孫無忌率牛進達等精兵一萬一千以為奇兵, 自山北於狹谷出, 以衝其後; 太宗自將步騎四千, 潛鼓角, 偃旌幟, 趨賊營北高峯之上; 令諸軍聞鼓角聲而齊縱."

www.kci.go.kr

3,500인이라고 기록하였다.[16] 이는 『通典』에 항복한 高句麗軍이 36,800인, 살해된 靺鞨人이 3,000인에 비해 『舊唐書』「高麗傳」에 기록된 항복한 高句麗軍이 156,800인으로 전자보다 120,000인이 더 많고 살해된 靺鞨人도 300인 더 많다.

이어서 宋太祖 建隆 2년(961년)에 편찬된 『唐會要』에 唐太宗의 高句麗 親征은 두 단락에 걸쳐 서술되었다.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자.

> 十一月 十六日(644. 12. 20)에 이르러 刑部尙書 張亮을 平壤道行軍大總管으로 임명하여 萊州에서 바다를 건너 平壤으로 진격하도록 명령하였다. 또 特進 李勣을 遼東道行軍大總管에 임명하여 遼東을 공격하게 하였다. 兩軍이 합세하여 같은 달 三十日(645. 1. 3)에 征遼의 兵이 幽州에 모이도록 하였다.[17]

여기에서 구체적인 唐軍의 수를 기록하지 않았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에서 高句麗 공격 과정을 서술하였다.

> ① [정관] 19년 四月에 李勣이 蓋牟城을 점령하여 2만 인을 생포하고 그 성에 蓋州를 설치하였다. 五月에 上은 遼水를

16) 『舊唐書』 卷199上 「東夷·高麗傳」, 5325쪽, "明日, 延壽獨見李勣兵, 欲與戰. 太宗遙望無忌軍塵起, 令鼓角並作, 旗幟齊擧. 賊衆大懼, 將分兵禦之, 而其陣已亂, 李勣以步卒長槍一萬擊之, 延壽衆敗. 無忌縱兵乘其後, 太宗又自山而下, 引軍臨之, 賊因大潰, 斬首萬餘級. 延壽等率其餘寇, 依山自保. 於是命無忌·勣等引兵圍之, 撤東川梁以斷歸路. 太宗按轡徐行, 觀賊營壘, 謂侍臣曰: '高麗傾國而來, 存亡所繫, 一麾而敗, 天佑我也.' 因下馬再拜以謝天. 延壽·惠真率十五萬六千八百人請降, 太宗引入轅門. 延壽等膝行而前, 拜手請命. 太宗簡僻薩以下酋長三千五百人, 授以戎秩, 遷之內地. 收靺鞨三千三百, 盡坑之, 餘衆放還平壤."

17) 『唐會要』 卷95 「高句麗傳」 貞觀十八年條, 2020쪽, "至十一月十六日, 以刑部尙書張亮為平壤道行軍大總管, 自萊州泛海趨平壤. 又以特進李勣為遼東道行軍大總管, 趨遼東. 兩軍合勢, 以其月之三十日, 征遼之兵, 集於幽州."

www.kci.go.kr

건넌 후에 橋梁을 없애도록 하여 士卒의 마음을 굳게 하였다. 上은 친히 甲騎를 거느리고 李勣과 함께 遼東城을 공격하여 점령한 후에 그 성을 州로 삼았다. 六月에 白巖城을 점령한 후에 그 성을 巖州라고 했다. 드디어 군사를 이끌고 安市城에 머물러 군사를 이끌고 공격하였다. 이때 高麗 北部耨薩 高延壽와 南部 高惠眞이 靺鞨의 무리 15만을 이끌고 구원하여 安市城 東南 8里 떨어진 곳에서 산을 의지하여 진을 쳤다. 上은 所司에 朝堂 곁에 授降幕을 치도록 명령한 후에, '다음날 午時에 이곳에서 降虜를 받아들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上은 밤에 文武 관리를 불러서 몸소 지휘하였다. 이날 밤에 유성이 적의 군중 속에 떨어졌다. 다음 날 싸워서 高句麗軍을 대파하였다. 延壽와 惠眞는 36,800인을 데리고 와서 항복하였다. 上은 酋首 3,500인에게 戎秩을 제수한 후에 內地로 옮겼다. 나머지 3만 인은 모두 석방하여 平壤城에 돌려보냈다. 靺鞨 3,300인을 체포하여 모두 파묻어 죽였다. 말 5만 필과 소 5만 마리, 甲 1萬 領을 획득하였다. 행차한 산 이름을 駐蹕山으로 이름 짓고 許敬宗에게 글을 짓게 하고 돌에 새긴 후 그 공적을 기념하게 하였다. 마침내 군대를 安市城 남쪽으로 이주시켰으나 오래도록 이기지 못했다. 九月에 드디어 회군하였다. 먼저 遼·蓋 2州의 戶口에게 遼水를 건너도록 하고 兵馬를 성 아래에서 성을 돌도록 하였다. 城主는 성에 올라 절하며 사례하였고 太宗은 그의 堅守를 가상히 여겨 縑 100필을 하사하여 임금을 섬긴 자를 격려하였다. ② 十一月에 幽州에 이르렀다. 처음에 遼(高句麗)에 들어갔을 때, 10만 인을 거느리고 각각 八駄가 있었다. 양군의 戰馬는 4만 필이었는데 돌아올 때에 이르러 1,200인이 죽었고 八駄와 戰死者는 10 중 7-8이었다. 張亮의 水軍은 7만 인이었으며,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 수백 인이었다. 內地로 옮겨진 遼·蓋·巖 2州 戶口는 전후 합하여 7만여 인이었

www.kci.go.kr

다.[18](강조는 필자)

위의 ①부분은『通典·邊防典』「高句麗傳」의 기록과 거의 같다. 다만 마지막에 군대 10만을 동원했고 양군의 戰馬가 4萬 匹이었으며 돌아올 때 사망한 군사가 1,200인, 八馱와 戰死者가 70-80%였고 張亮의 水軍이 7만 인이었고 바다에 익사한 사람이 수백 인이었으며 遼·蓋·巖 3州에서 內地로 옮긴 사람이 7만여 인이었다는 ②부분만이 추가되었다. 이 부분만 제외하면『唐會要』는『通典·邊防典』「高句麗傳」의 서술과 유사하다.

다음으로『冊府元龜』의 기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唐太宗 貞觀 18년 十月에 帝는 친히 六軍을 지휘하여 遼海를 건너려고 하였다. …(중략)… 甲午日(644. 12. 28)에 光祿大夫 刑部尙書 鄖國公 張亮을 使持節 平壤道行軍大總管에 임명하고 左領軍將軍 武水縣伯 常何와 瀘州都督 戴國公 左難當을 副總管에 임명하였다. 汾州刺史 黃國公 冉仁德과 眉州刺史 下傳縣男 劉英, 銀靑光祿大夫 行撫州刺史 張文翰, 雲麾將軍 行中郎將 龐孝恭, 右驍衛將軍 東平郡公 程名振을 모두 行軍總管에 임명하여 張亮의 지휘를 받도

18)『唐會要』卷95「高句麗傳」貞觀十九年條, 2021쪽, "十九年四月, 李勣攻拔蓋牟城, 獲口二萬, 以其城置蓋州. 五月, 上渡遼水, 詔撤橋梁, 以堅士卒之心. 上親率甲騎, 與李勣攻遼東城, 拔之, 以其城為州. 六月, 攻拔白巖城, 以其城為巖州. 遂引軍次安市城, 進兵以攻之. 會高麗北部耨薩高延壽·南部高惠真. 率靺鞨之眾十五萬來援, 於安市城東南八里, 依山為陣. 上令所司張授降幕於朝堂之側, 曰: '明日午時, 納降虜於此.' 上夜召文武, 躬自指麾. 是夜, 有流星墜賊營中. 明日, 及戰, 大破之. 延壽·惠真率三萬六千八百人來降. 上以酋首三千五百人授以戎秩, 遷之內地. 餘三萬人悉放還平壤城. 收靺鞨三千三百人, 並坑之. 獲馬五萬匹, 牛五萬頭, 甲一萬領. 因名所幸山為駐蹕山, 命許敬宗為文, 勒石, 以紀其跡. 遂移軍於安市城南, 久不剋. 九月, 遂班師. 先遣遼·蓋二州戶口渡遼, 乃召兵馬歷於城下而旋. 城主昇城拜辭, 太宗嘉其堅守, 賜縑百疋, 以勵事君者. 十一月, 至幽州. 初入遼也, 將十萬人, 各有八馱, 兩軍戰馬四萬匹, 及還, 死者一千二百人, 八馱及戰死者十七八. 張亮水軍七萬人, 沉海溺死數百人. 凡徙遼·蓋·巖二州戶口入內地, 前後七萬餘人."

www.kci.go.kr

록 하고 江·淮·嶺·硤의 勁卒 4만 인과 長安과 洛陽의 召募 3,000인, 戰艦 500척을 이끌고 萊州에서 바다를 건너 平壤으로 진격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特進 太子詹事 左衛率 英國公 李勣을 使持節 遼東道行軍大總管에, 禮部尙書 江夏郡王 道宗을 總管에 각각 임명하였다. 또 前幽州都督 虢國公 張士貴, 右領軍大將軍 安國公 執失思力, 右驍衛大將軍 張掖郡國公 契必何力, 右監門大將軍 阿史冊彌射, 右屯衛將軍 金城縣公 姜德本, 左武衛將軍 金城郡公 麴智盛, 雲麾將軍 新鄕縣公 吳黑闥, 營州都督 博臨縣男 張儉, 左驍衛中郎將 安縣和를 모두 行軍總管에 임명하여 李勣의 지휘를 받도록 하였으며, 步騎 6만 인과 蘭·河 2주 降胡에게 遼東으로 진격하도록 하였고 양군이 合勢하도록 하였다.[19]

위의 인용문은『冊府元龜』「帝王部」親征門에 기록된 唐太宗의 침공 기사이다.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唐太宗이 六軍을 거느리고 高句麗를 침략하려고 했으며 江·淮·嶺·硤의 勁卒 4萬, 長安·洛陽의 召募 3千, 戰艦 5百 艘로 구성된 水軍과 李勣 등 步騎 6만과 蘭·河 2州 降胡로 편성된 육군을 동원하였다.

『冊府元龜』에 "[五月]丁丑日(645. 6. 9)에 車駕는 遼水를 건넌 후에 橋梁을 치워 士卒의 마음을 굳건히 하였다. 甲士 6萬으로 馬首

19)『冊府元龜』卷117「帝王部」親征第二, 1278쪽, "唐太宗貞觀十八年十月, 帝欲親總六軍, 以度遼海. …… 甲午, 以光祿大夫·刑部尙書·鄖國公張亮為使持節平壤道行軍大總管, 以左領軍將軍·武水縣伯常何·瀘州都督·戴國公左難當為副總管, 汾州刺史·黃國公冉仁德·眉州刺史·下傳縣男劉英·銀青光祿大夫·行撫州刺史張文翰·雲麾將軍·行中郎將龐孝恭·右驍衛將軍·東平郡公程名振並為行軍總管以隸之, 率江淮嶺硤勁卒四萬, 長安·洛陽召募三千, 戰艦五百艘, 自萊州泛海趣平壤. 又以特進·太子詹事·左衛率·英國公李勣使持節遼東道行軍大總管, 以禮部尙書·江夏郡王道宗為總管, 又以前幽州都督·虢國公張士貴·右領軍大將軍·安國公執失思力·右驍衛大將軍·張掖郡國公契必何力·右監門大將軍阿史冊彌射·右屯衛將軍·金城縣公姜德本·左武衛將軍·金城郡公麴智盛·雲麾將軍·新鄕縣公吳黑闥·營州都督·博臨縣男張儉·左驍衛中郎將安縣和並為行軍總管以隸之, 步騎六萬, 幷蘭·河二州降胡趣遼東, 兩軍合勢."

www.kci.go.kr

山에 진을 쳤다"[20]라는 구절이 있는데, 唐太宗의 직속부대 군사의 수가 최소 甲士 6만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史書에 보이지 않는데 이를 포함하면 唐太宗의 高句麗 親征에 참전한 唐軍은 163,000인이다. 그러나 唐軍이 安市城에서 철군한 후의 기록을 보면 이 수와 다르다. 아래의 기사를 보자.

> 十月 丙申朔(645. 10. 26)에 蒲溝에 머물렀는데 길을 가득 채워 끝나지 않았다. 太宗은 말을 타고 감독하였다. 군사들이 渤錯水를 건널 때 暴風이 불고 눈이 내렸으며 매우 추웠다. 士卒은 물에 젖고 얼었으며 泥水에서 빠져죽은 말과 소가 매우 많았다. 큰불을 내서 대처하도록 명령하니 건너는 병사들은 이에 의존하여 안전히 건널 수 있었다. 처음에 太宗의 軍과 李勣이 遼(高句麗)를 침입할 때 10만 인을 거느리고 각각 八馱가 있었고 양군의 戰馬는 1만 필이었다. 돌아올 때 죽은 전사는 1,200인이었고 八馱와 戰馬는 10 가운데 7-8이 죽었다. 張亮의 水軍 7만인이 바다를 건넜는데 바람을 만나 익사한 자가 수백 인이었다. 內地로 이주시킨 遼·蓋·巖 3州 戶口는 전후 합하여 7만 인이었다.[21]

위의 인용문에서 唐太宗과 李勣 군대의 군인이 高句麗의 영토로 쳐들어 왔을 때 군인 수가 10만 인, 兩軍 戰馬 1萬 匹이었다고 기록하였다. 여기에서 高句麗를 침략한 唐軍이 10만이라고 기록했는

20) 『冊府元龜』 卷117 「帝王部」 親征第二, 1280쪽, "丁丑, 車駕渡遼, 撤橋梁以堅士卒之心. 甲士六萬營於馬首山."

21) 『冊府元龜』 卷117 「帝王部」 親征第二, 1283쪽, "十月丙申朔, 次蒲溝, 填路未畢. 太宗駐馬以督之. 及兵渡渤錯水, 暴風降雪, 時甚冰寒. 士卒沾凍, 馬牛溺於泥水死者甚多. 詔遣積火以待之, 渡兵賴以獲濟. 初, 太宗軍及李勣之入遼也, 將十萬人, 各有八馱, 兩軍戰馬萬匹. 及還, 戰士死者一千二百人, 其八馱及戰馬死十七八. 張亮水軍七萬人泛海, 遭風溺死者數百人. 凡徙遼·蓋·巖三州戶口入內地, 前後七萬人."

www.kci.go.kr

데 이는 앞의 두 사료에서 합산한 163,000인보다 63,000인 더 적다. 같은 책의 같은 部(帝王部)와 門(親征門)에서 달리 기록하여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게다가 군사의 수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군량미 수를 보면 이 두 수치와 다를 수 있다. 『舊唐書』, 『唐會要』와 北宋 중기에 편찬된 『新唐書』에서 唐太宗의 高句麗 침공 때 동원한 군사가 10만이라고 기록하였다.[22] 『新唐書』에 17만이라는 기록도 있다.[23] 『資治通鑑』[24]과 『三國史記』[25]의 기록에 長安·洛陽에서 모집한 3천 인이 더 기록되었는데, 이를 합하여 103,000인이다. 요컨대 『冊府元龜』, 『新唐書』, 『資治通鑑』 가운데 『冊府元龜』의 기사가 가장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新唐書』와 『資治通鑑』은 이를 '취사선택'하였다. 또는 이 세 史書가 공통적으로 초록한 원시 사료가 존재했을 것이다.

---

22) 『新唐書』 卷220 「東夷·高麗傳」, 6189쪽, "於是北轅粟營州, 東儲粟古大人城. 帝幸洛陽, 乃以張亮為平壤道行軍大總管, 常何·左難當副之, 冉仁德·劉英行·張文幹·龐孝泰·程名振為總管, 帥江·吳·京·洛募兵凡四萬, 吳艘五百, 泛海趨平壤. 以李勣為遼東道行軍大總管, 江夏王道宗副之, 張士貴·張儉·執失思力·契苾何力·阿史那彌射·姜德本·麴智盛·吳黑闥為行軍總管隸之, 帥騎士六萬趨遼東."

23) 『新唐書』 卷220 「東夷·高麗傳」, 6193-6194쪽.

24) 『資治通鑑』 卷197 「唐紀」13 唐太宗貞觀十八年十一月條, 6214쪽, "甲午, 以刑部尚書張亮為平壤道行軍大總管, 帥江·淮·嶺·峽兵四萬, 長安·洛陽募士三千, 戰艦五百艘, 自萊州泛海趨平壤; 又以太子詹事·左衛率李世勣為遼東道行軍大總管, 帥步騎六萬及蘭·河二州降胡趣遼東, 兩軍合勢並進. 庚子, 諸軍大集於幽州遣行軍總管姜行本·少府少監丘行淹先督眾工造梯衝于安蘿山. 時遠近勇士應募及獻攻城器械者不可勝數, 上皆親加損益, 取其便易."

25) 『三國史記』 卷21 「高句麗本紀」9 寶臧王上 三年十一月條, "十一月, 帝至洛陽. 前宜州刺史鄭天璹, 已致仕, 帝以其嘗從隋煬帝伐高句麗, 召詣行在問之. 對曰: "遼東道遠, 糧轉艱阻, 東夷善守城, 不可猝下." 帝曰: "今日非隋之比, 公但聽之." 以刑部尙書張亮, 爲平壤道行軍大摠管, 帥江·淮·嶺·硤兵四萬, 長安·洛陽募士三千, 戰艦五百艘, 自萊州泛海, 趣平壤. 又以太子詹事左衛率李世勣, 爲遼東道行軍大摠管, 帥步騎六萬, 及蘭·河二州降胡, 趣遼東. 兩軍合勢, 大集於幽州."

www.kci.go.kr

3. 唐軍 병력의 추산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唐太宗이 高句麗를 침공할 당시의 唐軍의 병력이 사서마다 다르다. 唐太宗의 高句麗 침공 당시 참전한 唐軍의 병력과 전과를 간단히 다룬 『通典』, 『舊唐書』, 『唐會要』와 구체적으로 기록한 『冊府元龜』 및 이를 참조한 『新唐書』, 『資治通鑑』, 『三國史記』에서 인용한 사료의 내원과 서술 史觀이 다름을 지적할 수 있다.

여기에서 唐太宗의 高句麗 침공 당시 병력을 알 수 있는 실마리는 『冊府元龜』와 『新唐書』, 『資治通鑑』에 기록된 高句麗의 蓋牟城, 遼東城, 白崖城(白巖城) 함락 당시 唐軍이 빼앗은 곡물의 양이다. 예컨대 『冊府元龜』에 따르면, 唐軍이 蓋牟城을 점령했을 때 倉糧 10餘萬 石,[26] 遼東城 점령 이후 50萬 石,[27] 白巖城에서 倉廩 28,000石[28]을 각각 획득하였다. 이를 합하면 628,000石이다. 이 가운데 唐軍이 安市城에서 후퇴할 때 遼東城에 아직 10萬 石이 남았다.[29] 즉 唐軍은 蓋牟城을 점령할 때부터 安市城에서 회군할 때까지 528,000石을 소비하였다. 『新唐書』 「高麗傳」에서 白崖城을 제외하고 蓋牟城 함락 후에 10萬 石,[30] 遼東城을 점령한 후 식량 50萬 石을 얻었다고 기록하였다.[31] 양자를 합하면 60萬 石이다. 그런데 唐軍이 遼東城에 도착했을 때 遼州(遼東城)에 10萬 斛 남아 있었다고 기록하였다.[32] 이 기록을 믿을 수 있다면 唐軍은 安市城의

26) 『冊府元龜』 卷117 「帝王部」 親征第二, 1280쪽.
27) 『冊府元龜』 卷117 「帝王部」 親征第二, 1280-1281쪽.
28) 『冊府元龜』 卷126 「帝王部」 納降, 1378쪽.
29) 『冊府元龜』 卷117 「帝王部」 親征第二, 1283쪽.
30) 『新唐書』 卷220 「東夷高麗傳」, 6190쪽.
31) 『新唐書』 卷220 「東夷高麗傳」, 6190-6191쪽.

www.kci.go.kr

포위 전후에 최소 50萬 石을 소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군량 소모량으로 唐軍의 병력을 추산할 수 있는데, 이에 앞서 唐軍의 체류 기간을 살펴보자. 즉 蓋牟城 점령 전후부터 唐軍의 동선을『新唐書』「太宗紀」를 통해 살펴보자.

> 四月 癸亥日(645. 5. 26)에 李世勣이 蓋牟城을 점령하였다.[33]

> 五月 己巳日(645. 6. 1)에 平壤道行軍總管 程名振이 沙卑城을 점령하였다. 庚午日에 太宗의 군대가 遼澤에 머물렀으며 전쟁에서 사망한 隋의 병사들을 묻어주었다. 乙亥日에 遼東道行軍總管 張君乂가 죄를 지어 주살하였다. 丁丑日에 馬首山에 주둔하였다. 甲申日(645. 6. 16)에 遼東城을 점령하였다.[34]

> 六月 丁酉日(645. 6. 29)에 白巖城을 점령하였다. 己未日에 高麗軍을 安市城 동남쪽 산에서 대파하였다. 左武衛將軍 王君愕이 전사하였다. 辛酉日에 삼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35]

> 九月 癸未日(645. 10. 13)에 회군하였다.[36]

唐軍이 遼東城을 점령한 후에 회군할 때까지 119일(3개월 27일)

---

32)『新唐書』卷220「東夷高麗傳」, 6193-6194쪽.
33)『新唐書』卷2「太宗紀」貞觀十九年四月條, 44쪽, "癸亥, 李世勣克蓋牟城."
34)『新唐書』卷2「太宗紀」貞觀十九年五月條, 44쪽, "五月己巳, 平壤道行軍總管程名振克沙卑城. 庚午, 次遼澤, 瘞隋人戰亡者. 乙亥, 遼東道行軍總管張君乂有罪, 伏誅. 丁丑, 軍于馬首山. 甲申, 克遼東城."
35)『新唐書』卷2「太宗紀」貞觀十九年六月條, 44쪽, "六月丁酉, 克白巖城. 己未, 大敗高麗于安市城東南山, 左武衛將軍王君愕死之. 辛酉, 賜酺三日."
36)『新唐書』卷2「太宗紀」貞觀十九年九月癸未條, 44쪽, "九月癸未, 班師."

www.kci.go.kr

이 걸렸다. 蓋牟城 점령(645. 5. 26)부터 계산하면 141일이다. 唐軍이 蓋牟城을 점령한 이후 획득한 식량은 10餘萬 石(『資治通鑑』), 500,000石(『新唐書』), 또는 528,000石(『冊府元龜』)이다. 唐軍이 이 식량만 소비했다고 가정하고[37] 安市城과 이전에 점령한 蓋牟城·遼東城·白崖城(白巖城) 일대에 있었던 唐軍의 총수를 살펴보자.

이를 위해 먼저 1인당 곡물 소비량을 계산해야 한다. 唐代의 기록 가운데 『通典·州郡典』에 군사들의 곡물 소비량을 가늠할 자료가 있다.

> 또 邊境에 節度使와 經略使를 설치하여 四夷를 막도록 하였다. 대체로 보아 鎭兵은 49萬 人이고, 戎馬는 8萬餘 疋이다. 每歲의 經費는 衣賜는 1,020萬 疋段, 軍倉은 190萬石이니 합계 1,210萬이다(細注: 開元・天寶 연간에 매해 변방에서 지출하는 액수는 200萬을 넘지 않았다).[38]

위의 인용문에서 鎭兵 49萬 人과 戎馬 8만여 필과 軍倉의 190萬石을 소비하였다. 위 인용문에 따르면 군인 1인이 1년에 소비하는 곡물은 약 3.88石(190萬石÷49萬人)이다. 따라서 蓋牟城 점령 이후 회군할 때까지 141일간 소모한 식량은 1인당 약 1.5석(3.88石×141/365=1.4988...)이다. 이를 통해 唐軍의 수를 계산할 수 있다.[39]

---

37) 唐太宗은 「高麗班師詔」에서 100일 동안 곡물을 자급자족하여 運糧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자부하였다(『唐大詔令集』(宋敏求 編, 北京: 中華書局, 2008) 卷130 「蕃夷」 討伐·高麗班師詔, 904쪽, "館穀十旬, 不假運糧之費; 徒兵累萬, 咸發兼乘之歌."). 이 조서는 점령하지 않은 高句麗의 성과 죽이거나 생포하지 않은 高句麗軍의 수를 과장했기 때문에 완전히 신뢰할 수 없지만(주)65 참조) 현지에서 軍糧을 직접 조달했다는 부분은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38) 『通典』 卷172 「州郡」2 序目下, 4479쪽, "又於邊境置節度·經略使, 式遏四夷. 大凡鎭兵四十九萬人, 戎馬八萬餘疋. 每歲經費: 衣賜則千二十萬疋段, 軍倉則百九十萬石, 大凡千二百十萬(開元·天寶每歲邊用不過二百萬)." 『舊唐書』 「地理志」에도 동일한 기록이 있다(『舊唐書』 卷38 「地理志」1, 1385쪽).

www.kci.go.kr

蓋牟城에서 10餘萬 石을 노획했다는『資治通鑑』의 기록에서 이 곡물만 唐軍이 소비했다면 唐軍은 약 66,667인이다(10만石÷1.5石, 소숫점 반올림).『新唐書』에 따르면, 蓋牟城에서 10餘萬石, 遼東城에서 50萬 石을 획득하고 遼東城에 10萬 石이 남아 500,000石을 소비했다고 기록했으므로 333,334인(50만石÷1.5石),『冊府元龜』에 따르면 352,000인이다(528,000石÷1.5石). 여기에 다른 곳에 있었던 군대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증가한다. 安市城 일대에서 활동했던 唐軍은 李勣이 지휘하는 선발대와 唐太宗의 직할군이고, 張亮이 이끄는 수군이 별도로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수치에 營州都督 張儉이 建安城을 공격한[40] 병력은 포함하지 않았다.

『資治通鑑』의 기록을 바탕으로 추산한 唐軍은 곡물량으로 추산한 安市城 일대의 66,667인에 張亮이 지휘한 43,000인을 더하면 109,667인이다. 이 수는 처음 출정한 唐軍 103,000인과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資治通鑑』에서 蓋牟城에서 획득한 곡물만 기록하고 遼東城에서 획득한 곡물량을 누락한 것은 기록상 唐軍의 수를 일치시키는 수미상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법이었을 것이다.

『新唐書』에 기록된 唐軍의 노획 곡물 소비량으로 추정한 333,334인에 船師(水軍) 7만[41]을 더하면 403,334인이다.『冊府元

39) 蓋牟城과 遼東城에서 安市城까지 운송한 인원도 포함해야 하는데 구글로 검색한 遼東城과 安市城은 唐代 하루 일정에 해당하므로 운송인원이 소모한 식량은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40)『冊府元龜』卷357「將帥部」18 立功10 張儉條, 4032쪽, "征遼東, 時有獲高麗侯者, 稱莫離支將至遼東, 詔儉率兵新城路邀莫離支, 竟不敢出. 儉因進兵渡遼, 趨建安城."; 『冊府元龜』卷384「將帥部」45 褒異10 張儉條, 4344쪽, "張儉為營州都督, 兼護東夷校尉. 太宗將至遼東, 拜行軍總管, 進渡遼, 趨建安城, 賊徒大潰. 以功累封皖城郡公, 賞賜甚厚."; 『資治通鑑』卷197「唐紀」13 唐太宗貞觀十九年四月戊戌朔條, 6218-6219쪽, "夏四月戊戌朔, 世勣自通定濟遼水, 至玄菟. 高麗大駭, 城邑皆閉門自守. 壬寅, 遼東道副大總管江夏王道宗將兵數千至新城, 折衝都尉曹三良引十餘騎直壓城門, 城中驚擾, 無敢出者. 營州都督張儉將胡兵為前鋒, 進渡遼水, 趨建安城, 破高麗兵, 斬首數千級."

41)『新唐書』卷220「東夷·高麗傳」, 6193-6194쪽.

www.kci.go.kr

龜』에 기록된 唐軍의 노획 곡물 소비량으로 추정한 352,000인에 張亮이 지휘한 水軍 7만인을 더하면 422,000인이다.[42]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은 兵種이 있다. 즉 군량과 무기 등을 수송하는 치중부대인데 대개 민간인을 징발하였다. 隋煬帝가 大業 8년(612) 正月 제1차 高句麗 遠征을 선포하는 詔書를 선포한 후에 1,133,800인의 군대를 통원하며 200만이라 칭하였고 餽運者는 군인의 배였다고 『隋書』「煬帝紀」에서 기록하였다.[43] 『隋書』는 唐太宗 시기에 편찬되었고 唐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隋의 역사, 특히 煬帝를 폄하하였으므로 餽運者가 정규군의 배(즉 정규군×2)라는 기록이 과장이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宋代 沈括이 펴낸 『夢溪筆談』에 군량의 수송에 관한 기사가 있다.

> 무릇 군사가 행군할 때 식량은 적보다 가장 중요한 急務이다. 運糧은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勢는 어렵고 行은 멀다. 내가 일찍이 계산해보니, 한 사람이 米 6斗를 짊어지는데, 卒이 스스로 5일분의 乾糧을 휴대하면, 한 사람이 1인의 卒을 먹이는데 한번 가면 18일을 버틸 수 있다(米 6斗는 사람이 하루에 2升을 먹으므로 2인이 米 6斗를 먹으면 18일에 다 없어진다). 만약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계산하면 겨우 9일이다. 두 사람이 1인의 졸을 먹이는

42) 唐太宗은 貞觀 22년(648)에 다음 해(649년)에 30만을 동원해 高句麗를 멸하려고 하였다(『資治通鑑』 卷199 「唐紀」15 太宗貞觀二十二年六月條, 6258쪽, "上以高麗困弊, 議以明年發三十萬眾, 一舉滅之."). 여기에 등장한 30만이 육군만인지 전체 숫자인지 문맥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본문에서 군량미로 추산한 안시성 일대의 군인수인 333,334인 또는 352,000인와 유사한 숫자이다. 따라서 이 기사의 30만 대군이 唐太宗의 高句麗 침공 당시 동원한 육군의 수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43) 『隋書』 卷4 「煬帝紀」下 大業八年正月壬午條, 81쪽, "總一百一十三萬三千八百, 號二百萬, 其餽運者倍之." 隋煬帝가 1차 高句麗 침공에 1,133,800인의 군인을 동원했으므로 운송에 동원한 사람은 2,267,600이었다. 즉 정규군과 비정규 일반인을 포함하면 隋煬帝의 1차 高句麗 침공에 3,401,400인이 동원되었다.

www.kci.go.kr

데 한 번 가면 26일을 지탱할 수 있다(米 1石 2斗는 세 사람이 먹으면 하루에 6升이고 8일이면 1夫가 짊어지고 간 식량이 모두 사라지니 6일분 식량을 주고 되돌아온다. 후의 18일은 두 사람이 먹고 하루에 4升을 먹으면 된다). 만약 되돌아오는 것으로 계산하면 단지 13일이다(앞의 8일은 날마다 6升을 먹는다. 뒤의 5일은 돌아오는 일정이며 하루에 4升을 먹는다). 3인이 1인의 졸을 먹이면 한번 가는데 31일을 버틸 수 있다(米 1石 8斗, 앞의 6일 반은 4인이 하루에 8升 먹는다. 1夫를 줄이면, 4일의 식량을 지급할 수 있다. 17일 동안 세 사람이 하루에 6升을 먹는다. 또 1夫를 줄이면 9일의 식량을 지급할 수 있다. 뒤의 18일 동안 두 사람이 하루에 4升의 식량을 먹는다). 다시 돌아온다고 계산하면 16일을 진군할 수 있다(앞의 6일반은 하루에 8升씩 먹는다. 중간의 7인은 하루에 6升씩 먹고 후 11일은 모두 돌아오는 일정으로 하루에 4升씩 먹는다). 세 사람이 1인의 卒을 먹이는 것은 심하도다. 만약 10만의 군대를 동원하면 치중은 그 군대의 세 배가 되니 주둔하거나 전쟁하는 졸 7만 인에 이미 30만 인분의 군량을 운송한다. 여기에 어려움이 더욱 가해지는 것이다(오가는 운송인에게 지켜주는 병졸이 필요하다. 운송 도중에 죽거나 질병에 걸려서 사람 수는 점차 줄어들지만 감소한 식량은 수비병이 허비한다). 運糧의 법은 사람이 6斗의 식량을 짊어지고 가니 이는 총수로 계산한 것이다. 그 사이에 隊長이 짊어지지 않고 나무하고 물긷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운반할 인력은 반으로 줄어들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나머지를 균등하게 나누어 짊어져야 한다.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짊어져야 하는 곡식도 남은 사람들이 균등하게 나누어진다. 사람이 진 짐은 6斗만이 아니다. 따라서 군중에 쓸데없이 밥을 축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니, 1인의 夫가 헛되이 식량을 축내면 2-3인이 먹여야 한다. 늘 부족하다.

www.kci.go.kr

> 만약 가축으로 운반하면 낙타는 3石, 말과 노새는 1石 5斗, 나귀는 1石을 각각 싣고 갈 수 있다. 사람과 비교하면 운송량은 많고 비용은 적지만 가축이 먹을 건초가 늘 필요하고 가축이 대부분 말라 죽는다. 가축 한 마리가 죽으면 그 가축이 실었던 식량은 버려야 한다. 사람이 짊어지고 가는 것과 비교하면 이익과 손해가 반반이다.[44]

위의 인용문에서 軍卒 1인을 먹이기 위해 거리에 따라 2-4인이 운송해야 한다고 기록하였다. 7만 인의 군졸을 먹이기 위해 30만 인분의 군량을 운송해야 한다고 계산한 沈括의 주장이 옳다면 약 3-4배의 운송 인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沈括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唐軍이 高句麗까지 가는 거리와 도착시간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通典·州郡典』에 郡(州) 사이의 거리가 기록되었다. 이 가운데 唐太宗이 高句麗를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집중시켰던 幽州(范陽郡)에서 遼河(遼水)까지의 거리를 살펴보자.

---

44) 『夢溪筆談』 卷11 「官政」1 114-115쪽, "凡師行, 因糧於敵, 最為急務. 運糧不但多費. 而勢難行遠. 余嘗計之, 人負米六斗, 卒自攜五日乾糧, 人餉一卒, 一去可十八日(米六斗, 人食日二升. 二人食之, 十八日盡.), 若計復回, 只可進九日. 二人餉一卒, 一去可二十六日(米一石二斗, 三人食, 日六升, 八日, 則一夫所負已盡, 給六日糧遣回. 後十八日, 二人食, 日四升並糧.), 若計復回, 止可進十三日(前八日, 日食六升. 後五日并回程, 日食四升並糧.); 三人餉一卒, 一去可三十一日(米一石八斗, 前六日半, 四人食, 日八升. 減一夫, 給四日糧. 十七日, 三人食, 日六升. 又減一夫, 給九日糧. 後十八日, 二人食, 日四升並糧.), 計復回, 止可進十六日(前六日半, 日食八升. 中七日, 日食六升, 後十一日并回程, 日食四升並糧.); 三人餉一卒, 極矣. 若興師十萬, 輜重三之一, 止得駐戰之卒七萬人, 已用三十萬人運糧, 此外難復加矣(放回運人, 須有援卒. 緣運行死亡疾病, 人數稍減, 且以所減之食, 準援卒所費.). 運糧之法, 人負六斗, 此以總數率之也. 其間隊長不負, 樵汲減半, 所餘皆均在眾夫. 更有死亡疾病者, 所負之米, 又以均之. 則人所負, 常不啻六斗矣. 故軍中不容冗食, 一夫冗食, 二三人餉之. 尚或不足. 若以畜乘運之, 則駝負三石, 馬騾一石五斗, 驢一石. 比之人遠, 雖負多而費寡, 然芻牧不時, 畜多瘦死. 一畜死, 則并所負棄之. 較之人負, 利害相半."

www.kci.go.kr

<표 1>『通典』에 기록된 郡(州) 사이의 거리

구 간	거리	소요 일정	
		보행, 나귀 이용 50리[45]	수레 이용 하루 30리[46]
范陽郡(幽州)-漁陽郡(薊州)	210里	4.2일	7일
漁陽郡(薊州)-北平郡(平州)	300里	6일	10일
北平郡(平州)-柳城郡(營州)	700里	14일	23.3일
柳城郡(營州)-遼河	480里	9.6일	16일
합 계	1,690里	33.8일	56.3일

* 출처 :『通典』권178「州郡」8 范陽郡(幽州)條細注, 4709쪽;『通典』권178「州郡」8 漁陽郡(薊州)條細注, 4713쪽;『通典』권178「州郡」8 漁陽郡(薊州)條細注, 4715쪽을 참조하여 필자가 직접 작성

唐太宗의 高句麗 침공 당시 唐의 운송로는 육로와 해로가 있다. 이 가운데 육로만 살펴보면, 唐軍의 집결지인 幽州에서 遼河(遼水)까지 짊어지거나 나귀를 이용하면 33.8일(1,690里÷50里), 수레를 이용해 곡물이나 무기 등을 수송하면 56.3일(1,690里÷30里)이 걸린다. 위의 인용문에서 가장 먼 31일을 편도로 진군하는데 3인의 운송 인원이 6斗의 식량을 짊어져야 한다. 말과 노새, 나귀를 이용할 경우 하루에 30리가 걸린다고 하면 거리는 약 57일이지만 운반할 수 있는 식량의 수는 늘어난다. 따라서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사람만을 이용할 경우 약 34일 또는 57일 동안 버틸 식량을 운반할 사람이 병사 1인당 운반 인원 3인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45) 근거:『唐六典』에 육로로 가는 하루 거리가 기록되었다. 이에 따르면 말은 하루에 70里, 도보와 驢를 타고 가면 50里, 수레는 30里이다(『唐六典』 卷3 尙書戶部·度支郎中條, 80쪽, "凡陸行之程, 馬日七十里, 步及驢五十里, 車三十里."). 唐軍이 騎兵과 步兵으로 구성되었지만, 행군 중에 步行했다고 계산하여 하루에 50里를 갈 수 있다.

46) 근거: 앞의 주에서 인용한『唐六典』에 따르면 수레를 이용한 하루의 운송거리는 30里이다.

www.kci.go.kr

가축이나 수레를 이용하면 짊어지는 일꾼의 수를 줄일 수 있지만, 가축을 움직이는 사람과 호위병도 필요하다. 따라서 정규군의 배나 많은 餽運者가 동원되었다는 『隋書』「煬帝紀」의 기록은 과장이 아니다. 『夢溪筆談』의 계산에 따르면 오히려 수양제는 가축, 마차 등을 이용했기 때문에 식량을 운반하는 짐꾼의 수를 2명으로 줄였을 것이다.

당시 唐軍이 가축을 이용하여 식량을 실어날랐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夢溪筆談』의 기록에 따라 치중 부대는 정규군의 3배라고 계산한다. 그러나 唐軍의 치중부대가 唐의 영토에서 高句麗 땅으로 식량 등을 운반했는지는 史書에 기록이 없어서 단정할 수 없다. 李勣의 唐軍은 遼水를 건너 玄菟·新城에 이르렀으나 점령하지 않고[47] 蓋牟·遼東 2城을 점령하고 白崖城(白巖城)을 항복시켰다. 즉 국경에 위치한 玄菟城 등이 여전히 高句麗 땅이었기 때문에 唐의 치중 부대가 국경선에서 멀리 떨어진 安市城 일대까지 물자를 운송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輕武裝의 호위를 받는 唐의 치중 부대가 국경과 기타 지역의 高句麗軍의 수비망과 기습공격을 뚫고 安市城 일대까지 물자를 운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당시 唐軍이 高句麗에서 빼앗은 식량만으로 군량을 조달했다는 기록을 보면,[48] 唐의 치중부대 식량을 운반할 수 있는 지역은 高句麗와 唐의 국경선까지로 간주한다.[49]

---

47) 『冊府元龜』 卷117 「帝王部」 親征第二, 1280쪽, "四月戊戌朔, 李勣師自通定濟遼水至玄菟, 所經烽戍皆下之. 高麗大駭, 城邑各閉門不敢出. 壬寅, 江夏王道宗率眾數千至新城. 折衝都尉曹三良率十餘騎直壓其門下. 城中驚擾, 無敢出者. …… 癸亥, 李勣拔蓋牟城, 獲戶口萬餘人, 倉糧十餘萬石."

48) 『唐大詔令集』 卷130 「蕃夷」 討伐·高麗班師詔, 904쪽, "館穀十旬, 不假運糧之費; 徒兵累萬, 咸發兼乘之歌."

49) 李勣이 지휘하는 唐軍은 四月 戊戌朔(645. 5. 1)에 遼水를 건너 癸亥日(5. 26)에 蓋牟城을 점령하였다. 이 사이 唐軍은 25일만에 蓋牟城을 점령했으므로 한달 정도의 군량만 필요했고 운반했을 것이다. 이는 정규군과 소수의 치중부대로 충분히 운송할 수 있는 군량이었다.

www.kci.go.kr

위에서 살펴본 여러 조건을 바탕으로 전투병의 3배나 되는 치중 부대를 계산해보자. 『新唐書』의 논리를 따르면 정규군 333,334인과 비정규군 1,000,002인, 수군 7만을 합하면 1,403,336인이다. 『冊府元龜』의 경우 정규군 352,000인, 비정규군 1,056,000인, 수군 7만 등 모두 1,478,000인이다. 이 가운데 唐太宗의 高句麗 침공을 자세히 기록한 『冊府元龜』의 기사를 신뢰할 수 있다. 다만 치중 부대가 高句麗 영토 안까지 들어왔을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蓋牟城·遼東城·安市城 일대에 있었던 군인들은 주로 전투병이었을 것이다. 이 수치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다음 장에서 살펴본다.

4. 추산 唐軍 병력과 인구대비 징발률

3장에서 『冊府元龜』, 『新唐書』 『資治通鑑』(편찬 시대 순서)에 기록된 高句麗에서 획득한 곡물량을 바탕으로 唐軍의 병력을 추산하였다. 이 唐軍의 병력이 당시 唐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자. 먼저 太宗 시기의 인구를 살펴보자. 『通典·食貨典』에 太宗 貞觀 연간 戶數가 300만이 되지 않는다고 기록하였다.[50] 이를 통해 太宗 시기(627-649) 인구가 300萬 戶 미만임을 알 수 있다.[51] 또 梁方仲은 『舊唐書』 「地理志」의 "舊" 호구를 貞觀 13년의 戶口라고 보았다.[52]

50) 『通典·食貨典』 卷7 「食貨」7 歷代盛衰戶口·唐貞觀條, 148쪽, "大唐貞觀戶不滿三百萬. 三年, 戶部奏, 中國人因塞外來歸及突厥前後降附開四夷為州縣, 獲男女一百二十餘萬口."

51) 이밖에 『冊府元龜』, 『新唐書』 「食貨志」, 『文獻通考』도 『通典』의 기록과 같다(梁方仲, 『中國歷代戶口·田地·田賦統計』,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0, 69쪽, 甲表21 隋·唐·五代戶口數·每戶平均口數及戶口數的昇降百分比).

52) 梁方仲, 『中國歷代戶口·田地·田賦統計』, 78쪽, 甲表23 唐貞觀十三年各道戶口數·平均戶口數及各道戶口數的比重 및 78-85쪽, 甲表24 唐貞觀十三年各道府州戶口數及每縣平均戶口數和每戶平均口數.

www.kci.go.kr

예컨대 唐의 수도 京兆府의 호구는 “예전에 縣 18, 戶 27,650, 口 923,320을 거느렸다(舊領). 天寶 연간에 縣 23, 戶 362,921, 口 1,967,188을 거느렸다”[53]라고 기록되어 두 시기의 호구가 기록되었다. 즉 天寶 연간의 戶口와 “舊”의 연대가 太宗 貞觀 13년(639)라고 단정하였다. 필자가 梁方仲의 주장에 동의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舊” 호구는 玄宗 天寶 연간보다 이른 시기의 호구이어야 한다. 둘째, 戶數 합계 3,041,871戶[54]는 太宗 시기의 “大唐 貞觀 戶는 300만을 넘지 않는다”[55]라는 『通典』의 기록과 유사하다. 셋째, 唐은 貞觀 13년(639) 高昌을 평정한 후에 설치한 西州의 호구에 대해 『舊唐書』「地理志」 西州中都督府條에 “예전에 縣 5, 戶 6,466을 거느렸다. 天寶 연간에 縣 5, 戶 9,016, 口 49,476을 거느렸다. 京師 서북쪽 5,516里 떨어진 곳에 있으며, 東都에 이르려면 6,215里이다”[56]라고 기록하였다. 이 호구는 貞觀 13년(639) 또는 그 이후의 戶口일 수밖에 없다. 반면 高句麗를 멸망시킨 후에 설치한 安東都護府의 戶數는 天寶 연간의 戶口數만 기록하였다.[57] 따라서 『新

53) 『舊唐書』 卷38 「地理志」1 關內道·京兆府條, 1396쪽, “舊領縣十八, 戶二十萬七千六百五十, 口九十二萬三千三百二十. 天寶領縣二十三, 戶三十六萬二千九百二十一, 口一百九十六萬七千一百八十八.”

54) 梁方仲, 『中國歷代戶口·田地·田賦統計』, 78쪽, 甲表23 唐貞觀十三年各道戶口數·平均戶口數及各道戶口數的比重.

55) 『通典·食貨典』 卷7 「食貨」7 歷代盛衰戶口·唐貞觀條, 148쪽, “大唐貞觀戶不滿三百萬. 三年, 戶部奏, 中國人因塞外來歸及突厥前後降附開四夷為州縣, 獲男女一百二十餘萬口. 十四年, 侯君集破高昌, 得三郡·五縣·二十二城, 戶八千四十六, 口三萬七千三十一, 馬四千三百匹.”

56) 『舊唐書』 卷40 「地理志」3 河西道·西州中都督府條, 1644-1645쪽, “本高昌國. 貞觀十三年, 平高昌, 置西州都督府, 仍立五縣. 顯慶三年, 改為都督府. 天寶元年, 改為交河郡. 乾元元年, 復為西州. 舊領縣五, 戶六千四百六十六. 天寶領縣五, 戶九千一十六, 口四萬九千四百七十六. 在京師西北五千五百一十六里, 至東都六千二百一十五里.”

57) 『舊唐書』 卷39 「地理志」2 河北道·安東都護府條, 1527쪽, “凡此十四州, 並無城池. 是高麗降戶散此諸軍鎮, 以其酋渠為都督·刺史羈縻之. 天寶, 領戶五千七百一十八, 口一萬八千一百五十六.”

www.kci.go.kr

唐書』의 "舊" 호구는 고창이 멸망한 639년과 高句麗가 망한 668년 사이의 戶口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梁方仲의 연대 비정과 호구 통계를 믿을 수 있다.

梁方仲은 『舊唐書』「地理志」 각 지방의 "舊" 호구 수를 더했는데, 貞觀 13년(639) 戶數는 3,041,871戶, 口數는 12,351,681口였다.[58] 이 수치[59]를 3장에서 추산한 수치와 비교하면 군사와 치중에 동원된 인원의 비중을 알 수 있다. 이를 각각의 경우에 따라 계산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곡물량으로 추산한 唐軍의 규모 및 貞觀 13년(639) 호구수의 비중

史書 이름	唐軍 숫자		
	兵種	추산군인수	정관13년 인구대비비율
『冊府元龜』	安市城 일대의 唐軍	352,000인	2.85%
	張亮의 水軍	70,000인	0.57%
	치중부대(운송인)	1,056,000인	8.51%
	총계	1,478,000인	11.97%
『新唐書』「高麗傳」	安市城 일대의 唐軍	333,334인	2.70%
	張亮의 水軍	70,000인	0.57%
	치중병(운송병)	1,000,002인	8.10%
	총계	1,403,336인	11.36%
『資治通鑑』	安市城 일대의 唐軍	66,667인	0.54%
	張亮의 水軍	70,000인	0.35%
	치중부대(운송인)	200,001인	1.62%
	총계	336,668인	2.73%

* 출처 : 본문의 3-4장 내용을 필자가 직접 정리. 비교 기준인 호구는 梁方仲이 합산한 貞觀 13년(639) 戶數는 3,041,871戶, 口數는 12,351,681口를 인용하였다(梁方仲, 『中國歷代戶口·田地·田賦統計』, 78쪽, 甲表23 唐貞觀十三年各道戶口數·平均戶口數及各道戶口數的比重).

58) 梁方仲, 『中國歷代戶口·田地·田賦統計』, 78쪽, 甲表23 唐貞觀十三年各道戶口數·平均戶口數及各道戶口數的比重.

59) 비록 唐太宗의 高句麗 침공이 貞觀 19년(645)이라 호구수의 증감이 있지만 당시 연간 인구증가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6년 동안의 증감은 배제한다. 중국 인구사 전문가들은 근거없이 인구증가율을 상정한 후 계산하는데, 믿을 수 없으므로 이 역시 배제한다.

www.kci.go.kr

<표 2>에서 필자가 3장에서 곡물수로 추산한 唐軍의 수에 운송 인력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로 계산하면[60] 전체 인구 가운데 동원한 비율은 11.97%(『冊府元龜』), 11.36%(『新唐書』), 또는 2.73%(『資治通鑑』)이다. 남녀 성비를 1:1로 가정하면 성인남성을 동원한 비율은 23.94%(『冊府元龜』), 22.72%(『新唐書』), 또는 5.46%(『資治通鑑』)이다. 성인과 미성년·노약자의 비율을 1:1이라 가정하여 성인남성을 동원했다고 추산하면, 그 비율은 47.88%(『冊府元龜』), 45.44%(『新唐書』), 또는 10.92%(『資治通鑑』)이다. 따라서 2장에서 검토한 여섯 개 중국 문헌에서 唐太宗의 高句麗 침공 당시 동원된 병력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고, 사서마다 기록이 다른 이유는 당시 많은 성인 남성을 동원한 '虐政'을 숨기려는 조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貞觀 13년(639) 인구인 3,041,871戶와 12,351,681口는 隋煬帝 大業 5년(609) 8,907,546戶와 46,019,956口[61]의 각각 34.1%, 26.8%에 해당한다. 인구만 보면 唐太宗은 隋煬帝 시기의 26.8-34.1%의 적은 인구로 高句麗와 싸운 것이다. 또 隋煬帝는 전투병 1,133,800인과 전투병의 배인 餽運者 2,267,600인을 동원하였다.[62] 이는 隋煬帝 大業 5년(609)의 인구의 각각 2.46%, 4.93%에 해당한다. 이는 2.85%와 8.51%(『冊府元龜』), 2.70%와 8.10%(『新唐書』)보다 높았다. 지나치게 唐軍의 병력수를 적게 추산한 『資治通

60) 주)39와 3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蓋牟城·遼東城과 安市城은 하루만에 운반할 수 있는 거리이다. 정규군의 2-3배인 唐의 치중부대가 高句麗 영토 안까지 들어올 수 없다면 蓋牟城·遼東城 일대에서 생포한 高句麗 백성들을 동원했을 것이라는 반론도 가능하다. 그렇다고 해도 중국에서 요역에 동원한 백성들은 식량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唐軍이 이들에게 군량의 일부를 주었을 가능성이 없다. 또 蓋牟城과 遼東城에서 획득한 곡물은 창고의 곡물이었으므로 백성들의 식량을 제외한 수치이다. 즉 高句麗 백성들이 동원되어도 하루치 식량을 자비부담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61) 『隋書』 卷29 「地理志」上 序, 808쪽, "大凡郡一百九十, 縣一千二百五十五, 戶八百九十萬七千五百四十六, 口四千六百一萬九千九百五十六."

62) 『隋書』 卷4 「煬帝紀」下 大業八年正月壬午條, 81쪽, "總一百一十三萬三千八百, 號二百萬, 其餽運者倍之."

www.kci.go.kr

鑑』의 수치를 배제한다면, 『冊府元龜』의 징발비율인 2.85%(군인)와 8.51%(치중부대), 또는 『新唐書』의 2.70%(군인)와 8.10%(치중부대)는 隋煬帝 시기의 동원율인 2.46%과 4.93%보다 높다. 즉 唐太宗은 隋煬帝보다 절대 수치는 적지만 비율상 더 많은 백성들을 징발하였다.

또 唐代 657개의 折衝府마다 府兵을 1,000인이 배치되었다고 계산하면 전체 府兵의 수는 657,000인으로 추산된다.[63] 본장에서 추산한 352,000인(『冊府元龜』), 333,334인(『新唐書』), 66,667인(『資治通鑑』)이 전부 府兵으로 차출되었다고 계산하면 唐軍은 각각 전체 府兵의 53.6%(『冊府元龜』), 50.7%(『新唐書』), 10.1%(『資治通鑑』)가 동원되었을 것이다. 이는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唐太宗의 高句麗 침략 당시 동원된 折衝府의 府兵이 최대 50%에 달한다면 국방상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다.

5. 결론

필자는 본문에서 唐太宗의 高句麗 親征에 동원된 唐軍의 수를 추산하고 그 수가 의미하는 바를 밝혔다. 본문에서 唐太宗의 高句麗 침공을 다룬 史書를 편찬 순서대로 『通典』, 『舊唐書』, 『唐會要』, 『冊府元龜』, 『新唐書』, 『資治通鑑』, 『三國史記』 등에 기록된 唐軍 병력 수치를 분석하였다. 『通典』, 『舊唐書』, 『唐會要』는 唐軍의 공격을 간단하게 기록하였고 高句麗 城을 점령했을 때 살해하거나 생포한 高句麗人 수나 빼앗은 곡물의 양을 기록하지 않았다. 세 史書 가운데 『唐會要』에서만 唐軍의 수를 10만이라고 기록하였다. 반면

63) 谷霽光, 『府兵制度考釋』,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62, 154쪽, 表1 唐十道折衝府府數比較表.

www.kci.go.kr

『冊府元龜』에 唐軍의 성과가 가장 상세히 기록되었으며 『新唐書』와 『三國史記』는 『冊府元龜』의 기사를 채록하였다. 『資治通鑑』도 『冊府元龜』의 기록을 채록했으나 遼東城에서 획득한 곡물의 수를 기록하지 않는 등 '취사선택'의 태도가 보인다. 요컨대 唐太宗의 高句麗 침략 기사는 최소 4개의 자료 내원이 있었고 각각 『通典』, 『舊唐書』, 『唐會要』, 『冊府元龜』에 채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新唐書』와 『資治通鑑』, 『삼국사기』는 『冊府元龜』의 기록을 '취사선택'하였다. 고구려 침공을 다룬 기록이 여러 개이고 그 내용도 다르다는 점이 특이하며 이 가운데 어떤 기록이 옳은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冊府元龜』의 기록이 가장 상세하기 때문에 唐軍의 전공을 과장했다고 해도 唐太宗의 高句麗 침공을 분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료로 봐야 한다.[64]

추산한 唐軍 병력과 물자수송 인원을 바탕으로 唐 백성들의 부담을 계산한 결과 安市城 일대에 있었던 唐軍은 333,334인(『新唐書』) 또는 352,000인(『冊府元龜』)이었으며, 張亮이 지휘한 수군 7만인을 포함하면 최소 약 403,000(『新唐書』) 또는 422,000인(『冊府元龜』)을 동원하였다. 필자는 후자의 수가 당시 唐軍의 최소 숫자라고 생각한다. 이는 張儉 등이 지휘한 군사를 제외한 병력이다. 여기에 각종 물자를 수송하는 치중 부대의 수를 정규군의 3배라고 보면 唐太宗은 당시 인구의 최소 11.97%(『冊府元龜』), 또는 11.36%(『新唐書』)에 해당하는 정규군과 물자수송을 맡은 백성들을 최소한 高句麗와의 국경 지역까지 동원하였다. 이는 성인남성의 23.94% 또는 22.72%를 동원한 셈인데,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심지어 이 비율은 唐太宗이 비난한 隋煬帝의 제1차 고구려 침공(113만 동원)보다 높았다. 이것이 唐軍의 병력을 은폐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唐太

64)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冊府元龜』 同卷에서도 기록이 엇갈리기 때문에 엄밀한 사료비판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www.kci.go.kr

宗은 「高麗班師詔」에서 玄菟·横山·蓋牟·磨迷·遼東·白巖·卑沙·麥谷·銀山·後黃 11성을 점령하고 6萬戶와 18만인을 획득했으며 3대 대전을 통해 高句麗軍 4만여 급을 참하고 대장 2인과 裨將·官人·酋帥 3,500인, 병사 10만 인을 사로잡은 후 방면했다고 자부하였다.[65] 그러나 각종 사서에서 唐軍이 실제 점령한 성은 蓋牟·遼東 2城에 불과했으며 白巖城은 항복했을 뿐이다. 이처럼 전과가 컸다면 高句麗 침략에 동원된 唐軍의 수를 밝히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王道智墓誌」에서 이때의 상황을 "三韓이 완강하게 저항하여 六軍이 不振하였다"[66]라고 기록하였다. 간략하고 우회적이지만 이 기록이 실제 唐軍의 성과를 반영한 실상이었을 것이다. 최소 422,000인의 군대를 동원하여 2-3城을 점령한 전과는 초라했기 때문에 차마 唐軍의 실제 군대 숫자를 기록할 수 없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65) 『唐大詔令集』 卷130 「蕃夷」 討伐·高麗班師詔, 904쪽, "剋其玄菟·横山·蓋牟·磨迷·遼東·白巖·卑沙·麥谷·銀山·後黃等, 合一十城. 凡獲戶六萬·口十六有八萬. 覆其新城, 駐蹕建安. 合三大陣前後斬首四萬餘級. 降其大將二人, 裨將及官人酋帥子弟三千五伯人, 兵士十萬人, 並給程糧放還本土."

66) 「唐故左驃騎左一軍車騎將軍上柱國王君(王道智)墓誌銘」, 『唐代墓誌彙編』 乾封022, 456쪽, "旣而天子按劍, 親事遼陽, 三韓方梗, 六軍不振."; 「唐故左驃騎左一車騎將軍上柱國王君墓誌銘」, 『全唐文新編』 20, 14194쪽.

www.kci.go.kr

<참고문헌>

1. 한글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高句麗 對隋, 唐戰爭史』, 서울: 국방부, 1991
김용만,『새로 쓰는 연개소문傳』, 서울: 바다출판사, 2003: 168
노태돈,『삼국통일전쟁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拜根興, "激動의 50년-高句麗와 唐 關係 硏究-",『高句麗硏究』14, 2002: 417-443,
http://uci.or.kr///G704-001250.2002.14..015
이성제, "고구려와 거란의 관계-대수, 당전쟁기 거란의 동향과 그 의미-",『북방사논총』5, 2005
이호영, "당과의 전쟁", 국사편찬위원회 편,『한국사』5(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96: 141
임기환, "7세기 동북아 전쟁에 대한 연구동향과 과제-고구려와 수, 당의 전쟁을 중심으로",『역사문화논총』8, 서울: 신구문화사, 2014: 7-33,
http://www.uci.or.kr/?menuno=8#none
정동민, "최근 중국 학계의 고구려 전쟁사 연구」,『軍史』102, 2017: 259-294,
http://doi.org/10.29212/mh.2017..102.259

2. 한문문헌

『隋書』(魏徵 等撰, 北京: 中華書局, 1973)
『舊唐書』(劉昫 等修, 北京: 中華書局, 1975)
『新唐書』(歐陽修·宋祁 撰, 北京: 中華書局, 1975)
『通典』(杜佑 撰, 王文錦 등 點校, 北京: 中華書局, 1988)

www.kci.go.kr

『唐大詔令集』(宋敏求 編, 北京: 中華書局, 2008)
『唐會要』(王溥 撰,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6)
『冊府元龜』(王欽若 等編纂, 周勛初 等校訂, 南京: 鳳凰出版社, 2006)
『三國史記』
『夢溪筆談』(沈括, 鳳凰出版社, 2009)
『唐代墓誌彙編』(周紹良 主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
『全唐文新編』 20(周紹良 主編,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2000)

3. 중국어문헌

谷霽光,『府兵制度考釋』,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62
薑明勝, "隋唐與高句爭原因及影向探析", 延邊大學碩士學位論文, 2008
梁方仲,『中國歷代戶口·田地·田賦統計』,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0
馬正兵, "唐太宗三次東征的軍事失誤",『文史春秋』 2008-9, 2008
楊希義·于汝波,『唐代軍事史』上(中國軍事通史 第十卷),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1998: 156-161; 370
張國亮, "唐征高句麗之戰的戰略研究", 吉林大學碩士學位論文, 2008: 5-29
張豔, "朝貢關系下隋唐對高句麗戰爭的原因分析",『周口師範學院學報』 2015-6, 2015
張曉東, "唐太宗與高句麗之戰跨海戰略", 『史林』 2011-4, 2011
曹柳麗, "隋煬帝·唐太宗征高句麗軍事後勤建設比較研究」, 江西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3
拯救夢想, "隋唐皇帝禦駕親征爲何屢屢失敗",『時代青年』 2013-9, 2013
天行健, "隋唐爲何一定要征服高句麗",『會博覽(下旬刊)』 2012-6, 2012
祝立業, "略論唐麗戰爭與唐代東亞秩序構建",『社會科學戰線』 2014-5, 2014

www.kci.go.kr

(Abstract)

The Estimating Number of Soldiers Mobilized during the period of Tang Taizong's Aggression of Goguryo - The Number and its Implications of Tang's Forces based on the amount of Army Provisions for the Forces -

Choi, Jin-yeoul

This thesis is about estimating the number of soldiers mobilized during the period of the Tang Taizong's aggression of Goguryo and clarifying the implications of the number.

I estimated the number of Tang military forces participated in Anshi castle and Yodong(Liaodong in Chinese) castle battle, based on the provisions recorded in Ts'e-fu yuan-kui, New history of the Tang(Xin Tang shu), and Zizhi tongjian. I estimated the number of soldiers participated in Anshi castle and Yodong castle battle, ranging from 333,334(the record of Xin Tang shu) to 422,000(the record of Ts'e-fu yuan-kui) or ranging from 403,000 to 422,000 including Zhang Liang's naval forces, whose figures were excluding the military forces commanded by Zhang Jian and others. If we consider the number of units transporting various materials as ships of the regular army, the Tang Taizong mobilized at least 11.97% or 11.36% of the whole population of the country. It means he mobilized at least 23.94% or 22.72% of the grown-up male population, which was a great burden on the subjects. This ratio of mobilization was higher than the 1st Invasion of Goguryeo(1.33 million mobilizations) by the Sui Yangdi who was criticized by Tang Taizong, which was one of the reasons for concealing the number of the military forces in Tang history records.

This thesis has historical significance in that it becomes a breakthrough in re-evaluating the War of the High Command by accurately estimating

www.kci.go.kr

the number of military personnel at the time of the invasion of Goguryeo by Tang Taizong and re-evaluated Tang Taizong, who was exaggerated in the image of a good and wise king.

Keywords : Goguryo, the Tang Taizong's aggression of Goguryo, the war between Goguryo and Tang, the concealed number of soldiers, Tang Taizong, Sui Yangdi, Ts'e-fu yuan-kui, New history of the Tang(Xin Tang shu), Zizhi tongjian

www.kci.go.kr

www.kci.go.kr